

<순서 삽입 유형 일반론>+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38,39번

-연결고리 찾기

순서 삽입 문제의 핵심은 '지문 속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순서 배열 문제를 단순 해석, 내용 상으로만 풀게 되면 상당히 헛갈린다. 수능은 국가시험이기에, 평가원은 항상 정답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지문에 포함시켜 놓는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 근거인 '주어진 문장과 지문 사이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시대명사, 접속사, 겹치는 소재 등등이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 1)주어진 문장을 읽으며 주어진 문장의 소재, 방향 정도를 정리한다.
- 2)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문장 앞, 뒤에 와야 할 내용을 예측해본다.
- 3)예측을 토대로 지문 속 객관적 근거(주어진 문장과 지문의 연결고리)를 찾아 답을 고른다.

-모순찾기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특히나 선지 두 세개 중에서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둘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문제가 어렵고 헛갈릴 때는 '답이 되는 이유' 말고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소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지문과 주어진 문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지문 자체에서 현재 상태로 모순이 생기는 부분을 답으로 고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는 좋다. ㉓ A는 나쁘다. >>어떤 내용이든 중간에 문장 삽입 필요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38번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particularly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can, in principle, be very precisely targeted to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 (①) If a firm pollutes more, it pays additional tax directly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s. (②) The polluter thus h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in any manner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tha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③)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re actions that also reduce emissions. (④) Nevertheless,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⑤)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s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 abatement: 감소 **liability: 부담액

Q1. 박스 문장에서 저자가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ex 긍정적, 부정적)

A1.

저자는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는 비용이 많이 들며, 배출물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주요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지속적인 배출물 측정)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저자의 부정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2.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can, in principle, be very precisely targeted to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잡아봅시다.

A2.

주어 :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동사 :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라는 부분을 보고 여기서 동사가 아닌가 헷갈려서는 안됩니다. 뒤에 'can be targeted'라는 문장의 진짜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는 'Environmental tax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re actions that also reduce emissions. (④) Nevertheless,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④)에 아무 내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때, 내용상 모순을 느껴봅시다.

A3.

'세금을 측정된 배출물에 직접 기반하는 것의 매우 큰 매력은 공해 기업이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배출물을 줄이는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방출에서 특정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관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앞뒤로 문장의 방향성이 맞지 않습니다. ‘Nevertheless’와 같은 역접의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앞 뒤 내용(방향성)이 반대가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즉 ‘폐기물 방출 기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방출 기술 +’와 같은 논리구성을 띄어야 하는데, Q3문장에서는 ‘폐기물 방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방출 기술 +’의 논리구성을 띄고 있어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대로 놔두면 내용 흐름상 모순이 생겨 정답은 4번이 됩니다.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particularly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Environmental taxe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can, in principle, be very precisely targeted to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 (①) If a firm pollutes more, it pays additional tax directly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s. (②) The polluter thus h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in any manner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tha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③)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re actions that also reduce emissions. (④) Nevertheless, the technologies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⑤) In the future, it may be possible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s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 abatement: 감소 **liability: 부담액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39번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i.e., figure) and style (i.e., background). (①)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②)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③)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④) Thus,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or easily interpreted),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3점]

* aesthetic: 미학의 ** pragmatic: 실용주의의

Q1. 박스 문장에서 문제 풀이의 핵심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체크해봅시다.

A1.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순서 삽입 문제에서 ‘this’ ‘these’와 같은 지시사들은 답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박스 문장을 읽으며 답의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박스 문장 바로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예측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Q2. ‘이항대립’이란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관련된 두 용어나 개념쌍을 의미합니다. 지문 속에서 대비되고 있는 두 대상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A2.

‘Representational paintings’ VS ‘Expressionist works’

‘구상주의(있는 그대로 표현)’ VS ‘표현주의(주관적 심리 표현)’라는 점에서 의미상 대립을 느껴도 좋고, 지문 속에서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라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대비되는 두 대상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Q3. 박스 문장에서 ‘active involvement’가 의미하는(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A3.

박스 문장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미학적 처리와 작품 의미 성찰의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 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관여는 미학적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문 속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작품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미학적 태도’라는 수단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적극적인 관여’라는 수단을 통해 ‘미학적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his active involvement’라는 박스 부분과 지문 속 연결고리를 찾아 연결시키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i.e., figure) and style (i.e., background). (①)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is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②)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③)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thereby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④) Thus,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or easily interpreted),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and an “aesthetic attitude”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3점]

* aesthetic: 미학의 ** pragmatic: 실용주의의